

영등포 로터리 고가차로 철거에 서울시민, 대중교통 증편 요구

영등포 교통혼잡 대책 마련 민원
市, 버스증차 대신 버스차로 연장
장애인일자리 사업 유지 목소리도

서울시민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영등포 로터리 일대 대중교통 증편 운행, 장애인일자리 사업 유지 등을 요구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정과 관련된 비전을 제시하는 온라인 창구 '시장에게 바란다'에 영등포 로터리 철거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이 최근 접수됐다.

청원자 A씨는 “영등포 로터리 철거로 인한 이용 차선 축소로 차가 밀릴 테니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어 있던데 자가용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으로 몰릴 때에 대비해 버스를 증편하거나 배차 간격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는 영등포 고가 철거와 관련해 시내버스 증차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운행 버스를 늘리면 교통량이 증가해 혼잡도가 높아질 것이



공사 후 영등포 로터리 조감도.

/서울시

라는 판단에서다. 대신 시는 시내버스의 운행 속도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영등포역 교차로~영등포 로터리 구간의 버스 전용 차로를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시 버스정책과는 “공사 기간 중 인근 도로로 우회하거나 지하철을 이용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유지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원인 B씨는 “구청마다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민간업체로 돌린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민간업체로 가도 현재 일하는 시간, 급여, 복지 등을 다 똑같이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시는 현재 자치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장애인일자리 프로젝트를 민간보조사업자가 시행하더라도 근무 시간과 급여 등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 장애인자립지원과는 “본 사업의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해 교부 및 집행하고, 각 자치구는 장애인 급여 등이 용도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매년 민간수행기관을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국제중 입학 경쟁률 ‘18대 1’… 역대 최고

2009년 개교 이래 최고 경쟁률 기록
특목·자사고 진학 유리해 경쟁 치열

2025학년도 전국 국제중학교 입학 경쟁률이 평균 17.91대 1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절대 평가인 중학교 내신에서는 학구열이 높은 분위기가 고입에 유리한 데다, 조기 해외 유학 대체 수요까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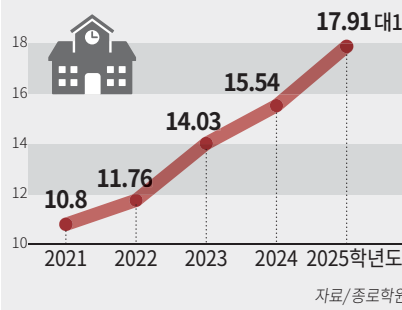
1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원서 접수를 마감한 전국 국제중 중대원·영훈·청심·부산국제중에 총 8597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17.9대 1을 기록했다. 네 곳 중학교의 총 선발규모는 480명이다. 경상남도 진주 선인국제중은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아 제외됐다.

국제중 4곳의 경쟁률은 최근 5년간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 2021학년도 10.80대 1이던 경쟁률은 ▲2022학년도 11.76대 1 ▲2023학년도 14.03대 1 ▲2024학년도 15.54대 1에 이어 2025학년도 17.91대 1까지 올랐다.

학교별로 보면, 서울 대원국제중은 160명 선발에 3803명이 지원해 지난 2009년 개교 이래 최고 경쟁률인 23.77대 1을 기록했다.

국제중학교 경쟁률 추이

대원·영훈·청심·부산국제중 평균 경쟁률



경기 가평 청심국제중도 2025학년도 경쟁률 18.39대 1을 나타내며 2009년 이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심국제중에는 100명 모집에 1839명이 지원했다. 아울러, 영훈국제중이 10.23대 1(전년 8.81대 1), 부산국제중이 21.98대 1(전년 20.9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처럼 국제중 경쟁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특목·자사고에 보다 유리하게 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학교 내신은 절대평가제로 이뤄져 특목고나 자사고 진학 시 일반중에 비해 내신 불이익이 없다. 실제로, 90점 이상(A) 비율은 일반중학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이현진 기자 lhj@

용인시, 경안천 산책로 24km 전 구간 연결

처인구 포곡~무현 4.7km 구간 완공
시민 일상 속 안전한 친수공간 될 것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 유운교부터 모현읍 왕산리 왕산교 사이에 폭 3m, 길이 4.7km의 경안천 산책로 조성 공사를 마쳤다.

이에 따라 처인구 해곡동부터 모현읍 왕산리 광주시 접경에 이르는 경안천 24km 구간의 하천 산책로가 모두 연결됐다. 왕복으로 하면 마라톤 풀코스(42.195km)까지 소화해 낼 수 있는 산책로가 완성된 것이다.

포곡읍 유운리 유운교부터 모현읍 왕산리 왕산교까지 경안천 주변 4.7km 구간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은

민선8기 이상일 시장의 공약이다.

경안천 제방길은 인근의 많은 시민이 산책로로 이용해 왔는데 일부 구간이 단절돼 도로를 이용해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이곳에 산책로 조성에서 1~3구간인 포곡읍 유운리 유운교~모현읍 갈담리 531~17번지 2.6km 구간을 2023년까지 완공한 데 이어 이번에 갈담리에서 왕산교에 이르는 2.1km 4구간 공사를 마쳤다.

시는 이번에 조성한 산책로가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상 속 친수공간이 될 것을 기대했다.

/용인(경기)=유진재 기자 yujin@

대세는 ‘K등산’… 관광코스 된 서울 명산

서울 등산관광센터 3명 중 1명 외국인
산행 물품 대여, 체험 프로그램 운영

서울관광재단은 ‘서울 도심 등산관광센터’ 방문객 3명 중 1명이 외국인이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도심 등산관광센터는 등산용품 대여, 짐 보관, 탈의실 운영, 산행코스 안내, 등산 체험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지난 2022년 9월 북한산 센터가 처음 문을 열었고, 올 4월 북악산에 이어 이달 1일 관악산 센터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센터를 찾은 방문객은 총 4만여명이며, 이

중 약 1만7600명이 외국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산 센터는 국립공원 초입인 우이신설선 북한산우이역으로부터 도보 5분 거리에 자리했다. 서울 도심 속 유일한 국립공원이자 구간마다 산세가 가파른 북한산의 특징을 반영해 아이젠, 등산스틱 등 안전한 산행을 위한 장비들을 다양 보유 중이며, 올해에만 1300여건의 물품이 대여됐다. 이외에도 건물 내 조성된 실내 클라이밍장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북악산 센터는 삼청동 내 전통 한옥에 설치됐다. 광화문광장, 경복궁 등 서울 도심을 둘러보며 피크닉을 즐길 수

있으며, 우비, 토시, 캠핑의자 등 가벼운 산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비해 관광객들의 호응이 높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관악산 센터는 신림선 관악산역 지하 1층에 위치해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한다. 관악산의 모습을 살린 바위를 센터 곳곳에 뒀고, 라운지에는 ‘계곡 물소리’, ‘산의 향기’ 등 오감 자극 요소를 배치했다. 신발 소독기와 의류 관리기도 마련됐다.

센터는 전문가와 함께 산을 오르는 특별 산행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개인·단체 외국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 도심 등산관광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대심도 빗물터널’ 내달 중 착공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일대 조성

서울시는 오는 12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에 조성되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지하 40~50m 아래에 큰 터널을 만들어 폭우 시 빗물을 보관하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

이다.

시는 지난달 30~31일 설계 평가회의를 열고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기본설계와 환기 수직구 등 우선 시공분에 대한 적격 판정을 내렸다.

단독 입찰한 한신공영 컨소시엄(강남역), 대우건설 컨소시엄(도림천), 디엘이앤씨 컨소시엄(광화문)을 대상으

로 그동안 공동설명회, 기술검토회의 등을 개최했고, 최종 설계평가를 완료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6개월간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설계 경제성 검토(VE)와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거쳐 본 공사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강남역·도림천·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 공사에 대한 설계 적격심의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푸틴, ‘전쟁 시 상호 군사원조’ 북러 조약에 서명
▲日연립여당 공명당, 국토교통상 사이토 데쓰오 신임 당대표로 선출

/사진 뉴시스

▲獨 ‘조기총선’ 모드 돌입…제1야당 “총선 1월로 앞당겨라” 압박
▲유엔 “가자지구 사망자 70%가 여성·어린이… 5~9세 사망자 가장 많아



▲미국 정부, TSMC에 첨단 반도체 중국 공급 중단 명령
▲트럼프 ‘SNS 인사’ 시작… “헤일리·폼페이도 기용 안할 것”

/사진 뉴시스

버스타비 **8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